

# 세계 최고의 문화재복원 전문가 꿈꾼다 프랑스 파리 유학생 김민중

글 김용래 파리 특파원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과 프랑스를 국빈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파리 루브르박물관을 방문해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주의 깊게 관람한 문화재는 바로 우리 한지가 복원작업에 사용된 18세기 고가구인 '막시밀리안 2세의 책상'이다.

루브르가 1951년부터 소장하고 있는 바이에른 왕국 시기의 이 고가구는 한국 전통 한지로 복원돼 한-불 간 문화교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문화재로 평가된다.

루브르 관계자도 김정숙 여사와 에마누엘 마

크롱 대통령의 부인 브리짓트 마크롱 여사를 안내하면서 "독일 가구가 프랑스에 있고 한국의 한지로 이를 복원했으니 3개국 작품"이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전주시는 2016년 5월 문화재복원용 전주 한지 샘플을 루브르박물관에 보냈고, 루브르의 세계적 수준의 문화재복원팀은 한지의 우수성을 확인하고서 1년간의 작업 끝에 막시밀리안 2세 책상의 복원에 성공했다.

전주 한지가 사용된 부분은 가구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중앙 서랍의 자물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북이 등껍질내피가 된 곳이다.

당시 한지를 이용한 복원에 참여했던 프랑스 문화부 소속 프레드릭 르블랑 복원사는 "전주 한지는 접착력과 가벼움, 강도, 치수 안전성, 상대적 투명성 면에서 우수해 섬세한 복원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루브르에서는 목재 문화재의 복원에 주로 일본 화지(和紙)를 이용했는데, 이번 복원은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전주시는 막시밀리안 2세 책상의 복원 성공으로 전주 한지의 문화재복원 소재로서의 시장성이 확인됐다고 보고 전주 한지의 세계화를 위한 작업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한지가 문화재복원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전주시와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프랑스에서 이 분야에 일생을 걸고 개척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 청년의 도전 정신도 한몫했다.

파리 1대학에서 문화재보존복원학으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딴 뒤 국군 유해발굴감식단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김민중(32) 씨가 그 주인공.

김 씨는 군 복무 전에 루브르의 문화재복원팀에서 1년 반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다.

당시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재복원 전문가들의 실력을 흡수하면서 전통 한지의 복원 소재로서의 가능성에 눈을 뗐다. 군 복무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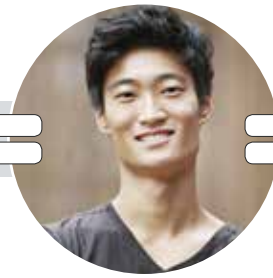
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택해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지금은 파리에서 박사과정을 하며 문화재복원 프로젝트와 연구를 수행 중인 김 씨는 작년 겨울에는 루브르에서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재복원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지를 주제로 한 콘퍼런스도 직접 주최했다.

김씨가 자리를 마련한 이 콘퍼런스에는 루브르 박물관장을 비롯해 프랑스의 복원 전문가들도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열네 살에 프랑스로 유학을 온 김 씨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과 외규장각 의궤를 프랑스에서 처음 발견한 고(故) 박병선 박사의 추천으로 한지의 매력을 처음 알게 됐고, 이후 문화재복원을 평생의 업으로 삼게 됐다.

"다빈치나 라파엘로의 그림을 복원하는 데 우리 한지가 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화재는 시간이 갈수록 뜯겨나가기 마련인데 복원을 위해 덧붙여진 한지는 그 문화재의 일부가 되는 거거든요. 멋지지 않습니까?"



## 뉴욕 초연 '인어공주' 왕자역 김기민

글 이준서 뉴욕 특파원

"발레에서 아시아인이라는 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인 특유의 한(恨)의 정서들이 표현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정상 발레단인 마린스키 발레단의 수석무용수 김기민(26)은 미국 뉴욕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마린스키에 입단할 때 한국인은 아무도 없었고 러시아어도 못했다"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후배들은 제가 만들어놓은 불빛을 보고 편하게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민은 "꿈을 빨리 이룬 편인데, 7년간 클래식 작품들은 다 해봤다"면서 "이들 작품을 더 완벽하게 소화해 관객들에게 강렬한 감동을 주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무용수가 되는 게 지금의 목표"라고 말했다.

235년 역사의 마린스키 발레단에 2011년 동양인 최초로 입단한 김기민은 2015년 수석무용수 자리까지 꿰찼다. 이제는 수많은 발레 유망주들이 선

망하는 세계적 간판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의 순수 창작 발레 '인어공주'의 뉴욕 무대에 출연하는 것도 이러한 후배들에 대한 의무감과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인어공주는 무용가 김선희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중) 무용원장이 안데르센 동화를 각색한 판타지 발레 작품으로 '김선희발레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꼽힌다. 지난 10월 20~21일 이틀간 맨해튼 미드타운의 '뉴욕시티센터' 무대에 올랐다.

김기민이 두 차례 공연에서 왕자역을 맡았다. 인어공주 역은 차세대 발레리나 이수빈과 박선미가 차례로 맡았다.

이수빈은 내년 1월 보스턴발레단에 입단할 예정이며, 한예중에 재학 중인 박선미는 지난해 모스크바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유망주다.

김기민은 "해외 발레단에서 이들 후배와 접촉하려고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볼 정도"라고 이수빈·박선미를 치켜세우면서 한국 발레가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민은 "이제는 한국 무용수가 해외 콩쿠르에 출전한다고 하면 다른 모든 나라가 긴장할 정도"라며 K 발레가 급성장한 공로를 김 원장에게 돌렸다.

이번에 뉴욕에서 초연된 인어공주는 김 원장이 학생들의 무대 경험을 위해 만든 작품으로, 각국 발레단에 자리 잡은 한국인 무용수들의 산실 역할을 했다.

인어공주를 가친 45명의 무용수가 전 세계 27개 발레단에서 뛰고 있다. 김기민도 그 가운데 한 명이다.

김 원장은 "서양의 안데르센 동화를 원작으로 했다는 것만 빼면 모든 게 '메이드 인 코리아' 작품"이라며 "먼저 뉴욕에서 성공해야 한다. 이곳에서 성공해서 유럽 각국에 진출해 한국인 무용수들로 무대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 교황청 관료조직 '쿠리아' 근무 한현택 신부

글 현윤경 로마 특파원

지난 10월 18일 교황청 사도궁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면담은 교황의 방북 초청 수락 여부에 전 세계적 관심이 쏠린 만큼, 문 대통령과 교황이 나눈 대화의 매개가 된 통역자에게도 눈길이 쏠렸다.

이탈리아 출신의 부모 슬하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교황은 이날 교황청의 공식 언어인 이탈리아어, 문 대통령은 한국어로 약 38분에 걸친 단독 면담을 포함해 55분가량 대화를 이어갔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문 대통령 사이의 통역은 교황청 관료조직인 쿠리아에 근무하는 유일한 한국인 사제인 한현택(36) 신부가 맡았다.

교황청 내부 사정에 밝고, 이탈리아어에 능통한 한 신부의 매끄러운 통역을 매개로 프란치스코 교황과 문 대통령은 시종일관 우호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홍성이 고향인 한 신부는 대전신학교를 졸업하고, 2011년 1월 사제서품을 받았다. 2013년 가톨릭 본산인 로마로 유학을 왔다.

한 신부는 쿠리아에서 일할 한국인 신부를 보내



달라는 교황청의 요청에 응한 천주교 대전교구(교구장 유홍식 주교)의 명령에 따라 2015년 9월부터는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에 파견돼 쿠리아 근무를 병행하고 있다.

인류복음화성은 아프리카의 거의 전 지역, 호주와 필리핀을 제외한 오세아니아와 동아시아 등 가톨릭이 상대적으로 덜 확산한 지역의 선교 업무를 관할하는 교황청의 조직이다.

전 세계 13억 신자를 거느린 가톨릭교회를 통솔하는 중앙 기구인 쿠리아에서 한국인 성직자가 일하게 된 것은 한 신부가 처음이다.

한국인 사제가 쿠리아에 근무하며, 교황청과 한국 천주교회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함에 따라 교황청과 한국 교회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다. ⑦